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 효능감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장희정 방희정 옥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모의 체벌 행동이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부모의 인지적인 변인인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를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여,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통해 공격성, 비행, 위축, 우울/불안의 아동의 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이러한 체벌 과정이 모의 양육 효능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5-7세 학령전기 아동의 모 253명으로 체벌에 대한 신념 척도, 양육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양육 효능감 척도, 부모 체벌 행동 척도,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각 변인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설정을 하였으며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 각 집단에 따른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양육 효능감의 중재 효과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체벌에 대한 신념이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체벌 행동은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 모두에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체벌 신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심리적 부적응

우리 나라 속담에 '귀한 자식에게는 때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체벌을 자녀 양육의 방법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또한 바람직한 자녀 양육의 방법의 하나로 인식해왔

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체벌은 즉각적인 순응성을 증가시키고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흔하게 체벌을 사용해왔다

(Paolucci & Violato, 2004). 한 연구에 따르면 걸음마기 아동의 부모 90% 이상, 그리고 초기 아동기 아동의 부모 50% 이상이 체벌을 사용하고 있으며 (Straus, Sugarman, & Gilsims, 1997), 여러 민족의 체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노헤런(199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부모의 대다수가 체벌을 효과적인 훈육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체벌을 부모의 책임이자 사랑의 행위로 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체벌이 과연 효과적인 아동 훈육의 방법인지, 정당한 폭력, 합법적 무력으로써 부모의 권리인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Baumrind, Larzelere, & Cowan, 2002).

체벌 효과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조망이 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체벌의 반대 입장이며(Gershoff, 2002; Straus, 2001; Xu, Tung, & Dunnaway, 2000), 하나는 조건적 체벌 찬성의 입장이다(Benjet & Kazdin, 2003; Larzelere, 1996; McLoyd & Smith, 2002). 예를 들면 Gershoff (2002)는 메타 분석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10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Lazelere(2000)은 학대가 아닌 체벌의 경우에는 유용한 훈육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아동에게 해롭기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Cernkovich와 Giordano(1987)도 체벌과 매는 청소년의 행동통제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철저한 감독과 체벌이 훈육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Gottfredson과 Hirschi(1990)은 적절한 처벌과 감독이 자기 통제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이성식, 2001에서 재인용).

이처럼 이제는 단순히 체벌과 아동 부적응의 결과만을 가지고 체벌의 효과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체벌 자체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가족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Paolucci & Violato, 2004). 이에 Gershoff (2002)는 process-context-model을 통해 매개와 중재 요인들을 포함한 가족적, 맥락적 접근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체벌이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그는 체벌 행동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맥락적인 중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Gershoff는 그러한 맥락으로는 부모의 감정 상태, 아동의 문제 행동의 특성 등의 상호작용 맥락(Interactional Context)과 부모의 특성, 아동 특성 등 안정적인 개인적 관계 맥락(Stable individual and relational Context),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 등의 사회 문화적 맥락(Social-cultural Context)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동안의 체벌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체벌 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련성만을 보거나 여러 가지 맥락과 과정의 경로를 간과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만이 부모의 체벌 행동과 아동의 행동간의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빈번한 체벌 사용에도 불구하고 모의 체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맥락적 접근을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소수이지만 최근의 가정에서의 체벌 연구들의 내용을 보면, 체벌 사용에 대한 성인 태도와 아동의 폭력 사용 용인도를

살피거나(윤혜미, 2000), 모나 아동의 체벌에 대한 태도만을 연구하였고(김정림, 윤혜미, 2002; 한지숙, 1995),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과 가정에서의 체벌(이성식, 2001) 혹은 체벌과 자녀 공격성의 관계(김민정, 2001; 이종철, 1996)를 단편적으로 살핀 연구가 전부이다. 체벌의 과정을 맥락적으로 살핀 연구(정준미, 이재연, 2000)에서도 부모의 아동기 체벌 경험이 어떻게 자녀 체벌로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아동의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는 체벌 행동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단순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일어나는 체벌 행동과 그 영향력에 대한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 비행 등의 문제만을 다루었으며, 내면화 문제 자체는 공격성이나 비행에 비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므로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 체벌과 내면화 문제의 관련성이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Hyman, 1996; Lasky, 1993; McCord, 1996; Straus, 1996), 이제는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체벌에 의한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체벌은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Pinderhughers, Dodge, Bates, Pettit & Zelli, 2000), 아동의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Straus & Mouradian, 1998; Paolucci & Violato, 2004) 이러한 아동의 감정적인 부분은 결국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 자녀간 신뢰나 애착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다시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일어나고, 부모는 이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더욱 강압적이고 체벌적인 훈육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Gershoff, 2002). 그러므로 단순히 행동으로써의 체벌이 아닌, 부모 자녀 관계의 맥락에서 체벌 행동 과정을 파악하고 아동의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에서 외현화, 내면화 문제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체벌 행동을 포함한 모든 부모 아동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부적응의 관계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신념이나 효능감 등의 부모의 인지적인 부분이다(Bor & Sanders, 2004). 신념이나 개인적인 발달력,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부모와 아동의 성격 특징 등에 기초한 부모의 신념, 양육 스트레스, 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은 체벌 행동을 통해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Mash & Johnston, 1990). 이러한 부모의 인지적 요인 중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체벌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의 강력한 예측자로서(안지영, 2001; Crnic & Greenberg, 1990) 아동의 기질이나 행동 특성 등과 부모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안녕감이 함께 영향을 주어서 형성되므로 체벌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주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에서 인지적인 태도, 가치, 귀인, 목표, 가치관 등의 집합체로써 재구성된 요소인 양육 신념의 하나로(안지영, 2001), 체벌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모의 체벌 신념(Holden, Coleman & Schmidt, 1995; Moore & Straus, 1987) 또한 부모의 체벌 행동과 연관된 주요한 인지적인 요인으로써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인 양육 효능감은(신숙재, 1997) 부모의 인지적 요소가 체벌 행동에 영향을 주고, 다시 체벌 행동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체벌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중재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누구나 생활에서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부모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지 혹은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지의 여부 또한 모 자신의 양육 효능감과 매우 관련 있으며, 그에 따라 양육 효능감 수준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신념, 양육 효능감과 모의 양육 행동과의 높은 관련성은 이미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 그 중요성이 밝혀져 왔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전인옥, 이경옥, 1999; Bor & Sanders, 2004; Sanders & Wolley, 2004).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양육 행동 중 특히 체벌 행동과 관련되어 부모의 인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체벌 행동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아동 적응의 결과가 어떠한지, 또 그 안에서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어떻게 일련의 체벌 과정을 중재하는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체벌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매우 큰 요소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며(노혜련, 1992; Gershoff, 2002; Giles-sims & Lochart, 2005), 어떠한 행동의 매개와 중재의 평가는 발달적 모델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ddy, Dishion & Stoolmiller, 1998), 우리 나라 문화 속에서 부모의 신념,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어떻게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벌 과정을 자세

히 밝히고 양육 효능감이라는 요소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중재 역할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체벌에 관한 신념, 체벌 행동, 아동 부적응, 양육 효능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체벌에 관한 신념이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3.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체벌에 관한 신념이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 효능감 고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지역의 5~7세 아동 253명의 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은 5~7세의 학령 전기로 제한한 이유는 이 시기에는 학령기에 비해 모와 자녀간 접촉이 많으면서도 사회화 훈련 등 체벌 등의 훈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령기에 친구와 관계가 형성되면서 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데 비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체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된다(Gunnoe & Mariner, 1997). Day, Peterson과 McCracken(1998). 그리고 Flynn(1998)에 따르면 학령 전기에 모의 체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며, 모는 0~4세 혹은 9~17

세 아동을 체벌하는 것에 비해 5-8세 연령의 아동에게 더 강한 체벌을 사용한다고 한다 (Straus & Stewart,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아동의 연령을 학령 전기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5.7세($SD=0.68$)였으며, 설문에 응한 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평균 연령은 34.64 ($SD=3.63$)세로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 분포는 대졸(43.1%), 고졸(27.7%), 전문대졸(20.6%), 대학원 이상졸(6.7%), 중졸(0.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73.1%), 사무직(8.3%), 전문직(7.9%), 판매 서비스직(6.7%), 관리직(0.8%), 기타(1.6%) 순으로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측정 도구

체벌에 대한 신념 체벌에 대한 효과성과 수용성에 대한 모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den 등(1993)이 개발한 Attitudes Toward Spanking / Slapping My Child Scale의 체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9항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체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체벌은 내 양육 방식의 한 부분이다’, ‘때때로 아이에게 말을 잘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와 같이 체벌을 훈육 방식의 하나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담고 있는 5문항이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71이다. 부정적 태도는 ‘아이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효과적이다’와 같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75이었다. 이들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

고, 점수는 부정적 신념 문항을 역채점하여 긍정적 신념과 합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훈육방식으로써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71이었다.

양육 스트레스 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3)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이대 언어청각임상센터 연구실(1992)이 번안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 중 양경화(2001)가 사용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PSI는 모의 양육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된 요인을 가지고 모가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자 개발된 자기 보고용 질문지로, 아동 영역(Child Domain), 부모 영역(Parent Domain)의 두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에게 느끼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는 아동 영역에 속하는 특징으로 적응성, 수용성, 요구성, 감정, 활동성, 강화의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73이다. 모 자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 영역에는 우울, 애착, 역할 제한, 유능감, 사회적 고립, 배우자 관계, 부모 건강이 있으며 부모 영역에 속하는 문항은 12문항으로 내적 일치도는 .76이다. 이들 문항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4이었다.

양육 효능감 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n과 Costigan(1998)의 Perceive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안지영(20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73이었다. 응답 문항은 모두 15문항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를 보면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부모 역할을 어려워하는 내용의 문항을 역채점 한 다음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부모 체벌 행동 모의 체벌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90)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 척도 중 김민정(2001)이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문항을 번안한 7문항을 참고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에 적합하게 세분화하여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CTS는 가족간 갈등 해결 전략을 다룬 척도로 합리적 대처(Reasoning),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Violence)의 3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신체적 폭력 척도는 아동 체벌이나 학대를 다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Gershoff, 2002). 질문은 15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체벌 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이었다.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하여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중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 비

행, 내재화 문제 중에서 위축, 불안/우울을 측정하였다.

내재화 문제에서는 오경자 등(1997)에 의한 분석에서 신체화(Somatic)를 포함하고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나, 예비 조사에서 체벌 행동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을 제외한 두 영역만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동의 행동에서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3점 척도로 대답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 증상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척도별 내적 일관성 계수는, 공격성 .86, 비행은 .86, 위축 .77, 우울/불안은 .81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2004년 11월에 본조사의 체벌 행동 척도를 포함한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사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체벌 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4주 간격으로 40명의 모를 대상으로 체벌 행동 척도의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5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배포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65부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5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PC+ Version 11.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살펴보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체벌 행동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알아보았다.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에 대한 신념이 체벌 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육 효능감이 높고 낮은 집단간 경로 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 samp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 모형과 다집단 분석에서 자료간의 부합 정도를 여러 가지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접근법 프로그램인 AMOS Version 4.01을 사용하였다. 원 자료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모형 검증을 위한 모수와 적합도 지수들의 계산은 FIML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주는 χ^2 적합도 지수 외에,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 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형을 평가하고자 한다(홍세희, 2001).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체벌에 대한 신념, 체벌 행동 및 아동 부적응의 변인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벌에 대한 신념은 체벌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 = .22$).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의 4가지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공격성, 비행, 위축, 우울/불안 각각 $r = .41$, $r = .32$, $r = .29$, $r = .35$), 양육 효능감과도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상관($r = -.44$)을 보였다.

또한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 부적응의 4개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측정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 효능감 점수의 상위 50%를 양육 효능감 고집단으로, 점수의 하위 50%를 양육 효능감 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단순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상관 관계

표 1.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1. 체벌에 대한 신념	1							
2. 양육 스트레스	.12	1						
3. 체벌 행동	.22**	.15*	1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4. 공격성	.11	-.41**	.24**	1				
5. 비행	.05	-.32**	.09**	.56**	1			
6. 위축	.08	-.29**	.16*	.65**	.54	1		
7. 우울/불안	.01	-.35**	.03	.66**	.66**	.69**	1	
8. 양육 효능감	-.08	-.44**	-.05	-.22**	-.19**	-.18**	-.25**	1

* $p < .05$, ** $p < .01$, $N=253$

를 살펴보면, 체벌에 대한 신념은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만 체벌 행동과 정적인 상관($r = .32$)을 보였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만 체벌 행동과 상관을 보였다($r = .23$).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에서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는 공격성($r = .32$)과 위축($r = .19$)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공격성($r = .18$)과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양육 효능감과 상관에서는 효능감 저집단에서는 양육 효능감이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체벌에 대한 긍정적 신념, 아동,

부모 스트레스 그리고 공격성, 위축, 우울/불안의 4개 요인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나서, 두 집단의 양육 효능감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체벌 과정의 모형 설정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 관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Crouch와 Behl(2001)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체벌에 대한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체벌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표 2. 양육 효능감 고, 저 집단의 단순 상관관계

양육 효능감 저집단	1	2	3	4	5	6	7	8
1. 체벌에 대한 신념	1							
2. 양육 스트레스	-.01	1						
3. 체벌 행동	.10	.23*	1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4. 공격성	-.05	-.43**	.32**	1				
5. 비행	-.03	-.35**	.11	.66**	1			
6. 위축	.03	-.28****	.19*	.59**	.58**	1		
7. 우울/불안	-.14	-.30**	.04	.60**	.67*	.66**	1	
8. 양육 효능감	.05	-.09	-.10	-.16	-.06	-.07	-.13	1
양육 효능감 고집단								
1. 체벌에 대한 신념	1							
2. 양육 스트레스	.17	1						
3. 체벌 행동	.32**	.09	1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4. 공격성	.19**	-.37**	.18*	1				
5. 비행	.10	-.22**	.16	.46**	1			
6. 위축	.10	-.26****	.13	.70**	.49**	1		
7. 우울/불안	.10	-.31**	.03	.74**	.60**	.74**	1	
8. 양육 효능감	-.05	-.43**	-.06	-.22*	-.15	-.21*	-.19*	1

* $p < .05$, ** $p < .01$, **** $p < .001$

하였으며, Crnic과 Booth(1991)은 부모가 가진 신념의 내용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여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신념 혹은 체벌에 대한 신념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는 양육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의 상관 분석에서도 체벌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부정적 신념은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에 관한 신념은 과연 상관을 가지면서 체벌 행동을 거쳐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서로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두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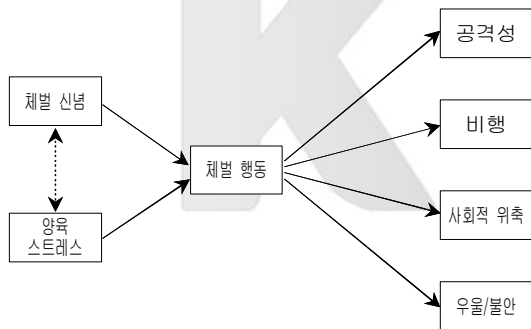


그림 1. 기본 모형과 수정 모형

주. 모형 A(기본 모형): 실선과 점선의 화살표로 구성된 모형

모형 B(수정 모형): 기본 모형에서 점선의 화살표를 제거한 모형

두 모형 간 차이를 χ^2 차이 검사(χ^2 difference test)로 검증해본 결과(홍세희, 2001), 아래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모형 간에는 6.142만큼의 χ^2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도 수준 $\alpha = .05$ 일 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더 간단한 모형인 모형 A를 선택하였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해주는 적합도 지수인 RMSEA에서도 모형 A가 여전히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에 대한 신념 간에 서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관이 있다는 모형 A가 지지되었다.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비교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간 동일성 검증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했다. 두 집단의 경로 계수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할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떨어지게 된다(홍세희, 2001). 기저 모형과 완전 제약 모형의 적합도 및 그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 양 모형 간에는 자유도 7에서 9.310만큼의 χ^2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유의도 수준 $\alpha = .05$ 일 때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차이 값인 14.07보다 작다. 곧, 두 집단간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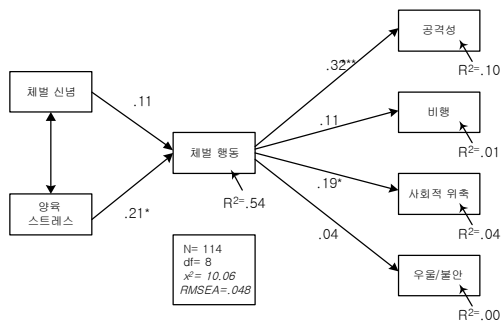
표 3.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Delta\chi^2$	Δ df	TLI	CFI	RMSEA
모형 A	20.370	8	-	-	0.989	0.997	0.078
모형 B	26.228	9	6.142	1	0.986	0.996	0.087

양육 효능감 저집단 모형 체벌에 대한 신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고 각각의 경로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중 양육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체벌에 대한 신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양육 효능감 저집단(N=114, 효능감 평균 하위 50%)을 설정하고, 이들 집단에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로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양육 효능감 저집단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 .996, CFI = .999, RMSEA = .048로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나타내고 있어 가정된 모형은 자료와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각 측정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 체벌 행동에 대한 효과는 양육 스트레스가($\beta = .21, P < .05$) 체벌 신념에 비해 더 큰 직접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의 체벌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미하였으며 체벌 신념($\beta = .11$)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p < .05$, *** $p < .001$

그림 2. 양육 효능감 저집단 모형

아동 부적응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격성에 대해 체벌 행동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벌 행동에 대한 아동 부적응에 대한 효과 중 공격성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에 대한 총 설명량은 10%였다. 그 다음으로 위축에 대해서 체벌 행동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beta = .19, P < .05$)하였으며 위축을 설명하는 총 변량은 4%였다. 아동 부적응의 다른 두 요인 비행과 우울/불안에서는 체벌 행동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각각 $\beta = .11, \beta = .04$)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체벌 행동의 효과는 공격성과 위축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에 대한 효과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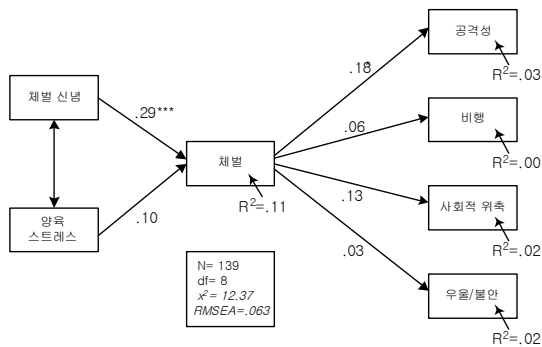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체벌 행동에 대해		
체벌 신념	.112	-
양육 스트레스	.207	-
공격성에 대해		
체벌 신념	-	.035
양육 스트레스	-	.066
체벌 행동	.317	-
비행에 대해		
체벌 신념	-	.013
양육 스트레스	-	.024
체벌 행동	.114	-
위축에 대해		
체벌 신념	-	.021
양육 스트레스	-	.039
체벌 행동	.190	-
우울/불안에 대해		
체벌 신념	-	.004
양육 스트레스	-	.008
체벌 행동	.040	-

양육 효능감 고집단 모형 양육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체벌에 대한 신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육 효능감 고집단의 경로 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양육 효능감 고집단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 .993, CFI = .998, RMSEA=.063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나타내고 있어 가정된 모형은 자료와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 체벌 행동에 대한 효과는, 체벌 신념만이 ($\beta = .29, P < .001$) 직접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의 체벌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체벌 신념만이 유의미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 ($\beta = .10$)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는 체벌 행동에 대해 11%를 설명하고 있다.

아동 부적응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격성에 대해 체벌 행동은 유의미한 효과 ($\beta = .18, P < .05$)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벌 행동에 대한 아동 부적응에 대한 효과 중 공격성



* $p < .05$, *** $p < .001$

그림 3. 양육 효능감 고집단 모형

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에 대한 총 설명량은 3%였다. 그밖에 아동 부적응의 다른 세 영역에서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비행, 위축, 우울/불안 각각 $\beta = .06$ $\beta = .13$ $\beta = .03$). 따라서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체벌 행동의 효과는 공격성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에 대한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체벌 행동에 대해		
체벌 신념	.292	-
양육 스트레스	.098	-
공격성에 대해		
체벌 신념	-	.018
양육 스트레스	-	.054
체벌 행동	.184	-
비행에 대해		
체벌 신념	-	.006
양육 스트레스	-	.018
체벌 행동	.060	-
위축에 대해		
체벌 신념	-	.013
양육 스트레스	-	.038
체벌 행동	.129	-
우울/ 불안에 대해		
체벌 신념	-	.003
양육 스트레스	-	.008
체벌 행동	.027	-

논 의

체벌 행동은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 등 모의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체벌 행동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러한 체벌 행동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고, 양육 효능감 고저에 따른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5~7세 아동의 어머니 2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 신념의 상관 여부에 따른 적합한 체벌 행동 모형을 설정하고, 양육 효능감 고저에 따른 모형의 동일성 검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 체벌 행동, 양육 효능감, 아동 부적응의 변수들간 상관 분석 결과, 체벌 행동은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모의 체벌에 대한 신념이 체벌 행동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Socolar & Stein,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체벌을 하는 모들은 체벌에 대해 좀 더 긍정적 기대를 한다는 Geshoff(2002)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 행동과의 관련성 또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비(Dumas & Weckerle, 1995; Pinderghes, Dodge, Bates, Pettit, & Zelli, 2000)와 같다.

체벌 행동과는 공격성과 위축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데 비해,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적응은 공격성, 비행, 위축, 우울/불안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체벌 행동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들에서(김민정 2001; 이종철, 1996; Bandura, 1973; Simon, Lin & Gordon, 1998; Straus, 1994) 밝혀진 바

와 같으며, 체벌 행동과 아동의 위축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 체벌과 아동 부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내면화 문제와 체벌 행동과의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상관 관계를 보면, 전체 집단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육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양육 효능감과 다른 요인들간에 상관이 전혀 없었으며,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체벌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전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서 두 집단간에 양육 효능감에 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 체벌 행동, 아동의 부적응 간의 상관 관계는 모의 양육 효능감 고저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동의 체벌 행동과 부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써 양육 효능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양육 효능감 고저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통해 어떻게 아동 부적응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하여 차이를 밝히기 위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는 서로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쟁 모형 평가를 한 결과,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는 서로 상관을 가지고 체벌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모의 양육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 간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Crnic & Booth, 1991) 모의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간 관련성을 밝힌 연구 (Milner, 1993) 와 일치하는 결과로 체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인지적인 요인들 간 영향력이 개별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안지영(2001)에서 양육 신념과 스트레스간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와 불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 신념은 양육 신념 중 체벌에 관한 신념으로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측정된 성숙/환경주의 신념과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모형을 살펴보면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의 두 인지적인 요인은 모의 체벌 행동에 다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체벌 행동은 다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설정한 모형은 경쟁 모형 평가에서 적합도 면에서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의 인지적인 요인이 서로간의 관련성 안에서 체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체벌 행동이 아동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체벌 모형의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집단에서 선정된 체벌에 대한 모형을 바탕으로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을 나누어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라 경로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경로 계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체벌 행동에 미치는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양육 효능

감 저집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과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Hillson & Kuiper, 1994)와 같이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반대로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 신념 중에서 체벌에 대한 신념만이 체벌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는 체벌에 대한 신념이 모가 체벌 행동을 하는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연구 (Holden, Coleman, & Schmidt, 1995; Jackson, Thompson, Christiansen, Coleman, Wyatt, & Buckendahl,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체벌 행동은 모의 신념, 양육 스트레스 등의 모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양육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체벌 행동이 결정되는지를 중재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좀 더 강압적이고 체벌적인 훈육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McLoyd, Jayaratne, Ceballos & Borquez, 1994), 양육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모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닌 아동 체벌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나타내는 체벌 신념에 의해서 아동을 체벌하게 된다. 하지만 양육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체벌에 대한 신념과는 상관없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바로 체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체벌 행동에 대한 설명량에서도 양육 효능감 고집단과 저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의 두 인지적 요인이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는 체벌 행동의 54%를,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11%를 설명하고 있어서 양육 효능감 고집단의 경우 모의 두 가지 인지적인 요인 외에 체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아동의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가

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 체벌 행동은 아동 부적응 중에서 공격성과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양육 효능감 고집단에서는 공격성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체벌 행동과 아동 공격성에 대한 결과는 기존의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밝혀져 온 결과와 같으며(Coie & Dodge, 1998), 모의 적대성을 아동기 공격성의 가장 유의미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한 Rutter와 Quinton(198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 체벌 행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차이는 있었으나, 체벌 행동의 공격성에 대한 유의미성은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서 모두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체벌 행동은 유의미하게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육 효능감 저집단에서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 중에서 위축이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학령전기 아동에 있어서 아동의 위축과 모의 체벌 등 강압적 훈육과 관련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asting & Rubin, 1999). 아동은 모에게 체벌을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 화, 고통, 공포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아동을 위축되도록 한다(Frijda, 1986). 더욱이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 모와 연관된 체벌의 메시지를 피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 자체도 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양육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행해진 체벌 행동이라는 점에서 좀 더 부정적인 아동의

감정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며주며 그 때문에 양육 효능감 고집단과 달리 내면화 문제가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보통 위축을 아동의 부적응의 표지로 인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에서 아동기 위축과 이후 내면화 장애와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Fox & Calkins, 1993). 그러므로 체벌 행동을 할 때 모의 스트레스 등 감정적인 면에 따라 아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아동의 위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 모두에서 아동 부적응 요소 중 비행이나 우울/불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행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 연령대의 아동들에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우울/불안도 아직은 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학령전기 아동에게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비행이나 우울/불안 등이 중기 아동기나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Slade와 Wissow(2004)에 의하면 2세 이전의 부모의 체벌이 4년 후 아동의 학교 입학 후 아동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서, 체벌 행동의 잠재적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종단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벌을 경험한 아동에게 유의미하게 성인기 우울증을 예측할 수 있으며(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Straus, 1996), 성인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다(Laub & Sampson, 1995; McCord, 197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벌과 관련되어 우울/불안 혹은 비행의 부적응 문제가 이후 장기적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보면, 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체벌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의해 체벌을 하게 되므로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동의 문제 행동을 덜 예측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에 의한 원하지 않는 이차적 효과(Holden, 2002)로써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서 모의 양육에 대한 유능감의 지각과 상관없이 체벌 행동 자체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 효능감이 낮은 모들은 체벌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양육 스트레스에 의한 체벌 행동을 주로 보이게 되며 이러한 체벌 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내면화 문제인 아동의 위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유능감 없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체벌 행동을 할 경우, 아동에게 더욱 큰 체벌의 부작용이 나타나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이 단순히 모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factor)들의 조합의 산물이며, 개인 가족 내외의 넓은 맥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체벌 행동 또한 모와 아동의 여러 가지 맥락적인 요인에 의해 구성되어 나타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단순한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

의 관계만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벌 과정에서 모의 인지적인 변인을 포함하여 체벌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혀 맥락적이며 발달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체벌은 아동에게 다양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동안의 체벌과 아동 부적응을 다룬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의 인지적 변인이 체벌 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 뿐 아니라 내면화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핌으로써, 체벌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아동의 위축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에 따른 체벌 과정에서의 차이를 밝혔다. 모의 인지적인 유능감을 나타내는 양육 효능감은 모의 신념과 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통해 아동 부적응에 이르는 과정을 중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모의 양육 효능감에 따라 아동의 체벌과 부적응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천적으로 모 개입을 통해 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양육 효능감 고저 집단 모두에서 아동의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어떠한 모의 인지적인 통찰이 있더라도 체벌이라는 것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자기 보고를 통하여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을 측정했다는 점이다. 모가 체벌 행동과 아동 부적응을 함께 평가할 때, 모의 성향에 따라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모의 선택적인 회상(Woodward & Fergusson, 2002)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의 인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므로 아동의 자기 보고나, 모 이외의 가족이나 교사의 보고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체벌과 아동 부적응에 대해 더 정확하게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대상 모가 대부분 주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업을 가진 모들을 포함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달적인 측면에서 체벌 행동은 즉각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력까지 고려하거나, 종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체벌의 발달적 맥락에 따른 장, 단기적 영향력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벌의 부정적 영향력만을 중심으로 체벌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체벌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체벌에 관한 더욱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민정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지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림, 윤혜미 (2002).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태도

와 아동학대 인식. 생활연구논총, 6(2), 77-93.
 김현미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혜련 (1992).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회지, 19, 113-137.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경화 (2001).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1997).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중앙적성출판사.
 윤혜미 (2000).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회, 43, 246-269.
 이성식 (2001). 가정에서의 체벌과 청소년폭력비행. 교정 연구, 12(1), 235-261.
 이종철 (1996). 부모의 체벌과 자녀의 공격성과의 상관연구. 한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인옥,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한국 유아교육학회, 19(1), 169-187.
 정준미, 이재연 (2000).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 한국아동학회지, 21(1), 85-98.
 한지숙 (1995) 체벌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 방법론 :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 모형과 잠재 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 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2001년 3

월 워크샵 자료집.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S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umrind, D., Larzelere, R., & Cowan, P. (2002). Ordinary physical punishment: Is it harmful? Comment of Gershoff(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 580-589.
- Benjet, C., & Kazdin, A. E. (2003). Spanking children: The controversies, findings, and new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197-224.
- Bor, W., & Sanders M. R. (2004). Correlates of self-reported coercive parenting of preschool-aged children at high risk for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8, 738-745.
- Cernkovich, S. S. & Giordano P. 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19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779-862)*. New York: Wiley.
- Collins, W. A., Maccoby,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ouch J. L. & Behl, L. E. (2001).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reported stress, and physical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25, 413-419.
- Day, R. D., Peterson, G. W., & McCracken, C. (1998). Predicting spanking of younger and older children by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79-94.
- Dumas, J. E., & Wekerlt, C. (1995). Maternal reports of child behavior problems and personal distress as predictors of dysfunctional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logy*, 7, 465-479.
- Eddy, J. M., Dishion, T. J., & Stoolmiller, M. (1998). The analysis of intervention change in children and families: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 embedded in intervention stud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53-69.
- Flynn, C. P. (1998). To spank or not to spank: The effect of situation and age of child on support for corporal punish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21-37.
- Fox, N. & Calkins, S. (1993).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Two possible pathways to extrover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K. H. Rubin & J.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81-10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shoff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 -579.
- Giles-sims, J., & Lokhart, C. (2005). Culturally shaped patterns of disciplining children. *Journal of*

- family issue*, 26, 196-218.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nnoe, M. L., & Mariner, C. L. (1997). Toward a developmental contextual model of the effects of parental spanking on children's aggression. *Archive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 151, 768-775.
- Hasting, P. D. & Rubin, K. H. (1999). Predicting mothers' beliefs about preeschool-aged children social behavior: evidence for maternal attitudes moderation child effects. *Child Development*, 70(3), 722-741.
- Hilson, J. M. C. & Kuiper, N. A. (1994) A stress and coping model of child mal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261-285.
- Holden, G. W. (2002). Perspectives on the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Comment on Gershoff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 590 -595.
- Holden, G. W., Coleman, S. D., Schmidt, K. L., & O'Dell, P. C. (1993). *Maternal use of physical punishment: Instrumental practices in the hom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 Holden, G. W., Coleman, S. M., & Schmidt, K. L. (1995) Why 3-years-old children get spanked: Parent and child determinants as reported by college-educated m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1, 431-452.
- Hyman, I. A. (1996). Using research to change public policy: Reflections on 20 years of effort to eliminat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Pediatrics*, 98(4), 818-821.
- Jackson, S., Thompson, R. A., Christiansen, E. H., Coleman, R. A., Wyatt, J., & Buckendahl, C. W. (1999). Predicting abuse-prone parental attitudes and discipline practice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3, 15-29.
- Larzelere, R. E. (1996). A review of the outcomes of parental use of non abusive or customary physical punishment. *Pediatrics*, 98(4), 824-828.
- Larzelere, R. E. (2000). Child outcomes of nonabusive and customary physical punishment by parents: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3, 199-221.
- Lasky, M. R.(1993). Family genesis of aggression. *Psychiatric Annals*, 23 , 494-499.
- Laub, J. H., & Sampson, R. J. (1995). The long-term effect of punitive discipline. In J. McCord (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erm perspectives*(247-25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4, 313-328.
- McCord, J.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 1477 -1486.
- McCord, J. (1996). Unintended consequences of punishment. *Pediatrics*, 98(4), 832-834.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cLoyd, V. C., & Smith, J. (2002). Physic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Afric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and Hispanic

- children: Emotional support as a moderat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40-53.
- Milner, J. S. (1993)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hysical child abu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275-294.
- Moore, D. W., & Straus, M. A.(1987). "Violence of parents toward their children." New Hampshire. Durham, NH: Famil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Hampshire.
- Paolucci, E. O. & Violato, C. (2004). A meta-analysis of published reasearch on the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3(8), 197-221.
- Pinderghes, E. E., Dodge, K. A., Bates, J. E., Pettit, G. S., & Zelli, A. (2000). Discipline responses: Influences of parent socio economic status, ethnicity, beliefs about parenting, stress, and cognitive-emotional proces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380-400.
- Rubin, K. H.,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Handbook of parenting: vol. 3*, (pp. 277-29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tter, M., & Quinton, E. (1984). Parental psychiatric disorder: Effects on children. *Psychological Medicine*, 14, 853-880.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 implications for parenting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Simons, R. L., Lin, K., & Gordon, L. C.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67-478.
- Slade, E. P. & Wissow, L. S. (2004) Spanking in early childhood and later behavior problem: A prospective study of infants and young toddlers. *Pediatrics*, 113(5), 1321-1330.
- Socolar, R. R. S, & Stein, E. K. (1995). Spanking infants and toddlers: Maternal belief and practice. *Pediatrics*, 95(1), 105-111.
- Straus, M. A. (1990).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an evaluation and new data on validity and reliability. In M. A. Straus & R. J. Gelles(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 145 families*(pp. 403-424). NewBrunswick. NJ: Transaction.
- Straus, M. A. (1994). Shoul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be considered child abuse? yes. In M. A. Mason & E. Gambрил I(Eds.), *Debating children's lives: Current controvers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97-203).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 M. A. (1996). corporal punishment as a stressor among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155-166.
- Straus, M. A. (1997). Spanking by parents and subsequent antisocial behavior of childre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1(8), 761-767.
- Straus, M. A. (2001).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families and its effects on children*, (2nd ed.). Family Research Laboratory.
- Straus, M. A., Sugarman, D. B., & Giles-sims, J. (1997). Spanking by parents and subsequent antisocial behavior of children. *Archive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 151, 761-767.
- Straus, M. A., & Mouradian, V. E. (1998). Impulsive corporal punishment by mothers and antisocial behavior and impulsiveness of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6, 353-374.
- Straus, M. A., & Stewart, J. H. (1999). Corporal

punishment by american parents: National data on prevalence, chronicity, severity, and duration, in relation to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 55-70.

Woodward, L. J., & Fergusson, D. D. (2002). Parent, child, and contextual predictors of childhood physical punish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1, 213-235.

Xu, X., Tung, Y., & Dunaway, R. G. (2000). Cultural, human, and social, and social capital as determinants of corporal punishment: Toward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603-630.

1차 원고 접수 : 2005. 7.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8. 22

최종게재결정 : 2005. 8. 23

K C I

The Influence of Maternal Belief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 Adjustment Problems mediated by Corporal Punishment -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Hee Jung Jang

Hee Jeong Bang

Jung Oak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belief about corporal punishment, parenting stress,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in accordance with parenting efficacy. The sample subjects were comprised of 253 preschool children's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ttitudes Toward Spanking/Slapping My Child Scale, Parenting Stress Index, Perceive Parenting Competence, Parenting corporal punishment Scale and Child Behavior Check List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s by SPSS 11.0 program, Multi sample analysis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Path analysis by Amos 4.01 program. This study confirmed how to parental cognitive factors have influence on child adjustment problems mediated by corporal punishment. Specially, this study made clear the influence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withdrawal) as well as externalized problems and the importance of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corporal punishment process.

Keywords: belief about corporal punishment ,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child adjustment